

금요조찬포럼 연간 개최 계획

- 행사일시 : 2024. 1. 1. ~ 25. 1. 31. 금요일
- 장 소 :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 연간계획 : 연간 40회 개최

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월	5일	12일	19일	26일(휴강)	
2월	2일	9일(설 연휴)	16일	23일	
3월	1일(삼일절)	8일 (제44회 총회)	15일	22일	29일
4월	5일	12일 (김대중 교육감 특강)	19일	26일	
5월	3일(휴강)	10일	17일	24일	31일(휴강)
6월	7일(휴강)	14일	21일	28일	
7월	5일	12일	19일	26일(휴강)	
8월	2일(하계휴가)	9일	16일(하계휴가)	23일	30일
9월	6일	13일(휴강)	20일	27일	
10월	4일(휴강)	11일	18일	25일	
11월	1일(휴강)	8일	15일	22일	29일(휴강)
12월	6일	13일	20일	27일(휴강)	
25년 1월	3일 신년인사회	10일	17일	24일(휴강)	설 연휴 (1/31)

반도체 주권국가

- 반도체는 왜 무기화 되었는가?-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베트남전 (미국 1964-1973)

롤링썬더 작전 (1965.3~1968.11.2)

- 86만 4천톤 폭탄 투하 (북 베트남)

<참고>

6.25 한국전쟁 3년	65만 5천톤 폭탄 투하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50만 2천톤 폭탄 투하

베트남전



AIM-7 공대공 미사일 명중률 (1965-1973)

➡ **9.2 %**

맨하탄 프로젝트 (1942-1946)

: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
(영국, 캐나다 공동 참여)

산업시대 ➡ 전자시대 전환 신호탄

반도체 패권전쟁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돈다."
(1957. 10. 5 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세계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존 F.케네디 (JFK)

- 쿠바 미사일 위기 (1962.10)

-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10년 안에 갈 것입니다”

미국의 아폴로 우주 계획 착수 (1962)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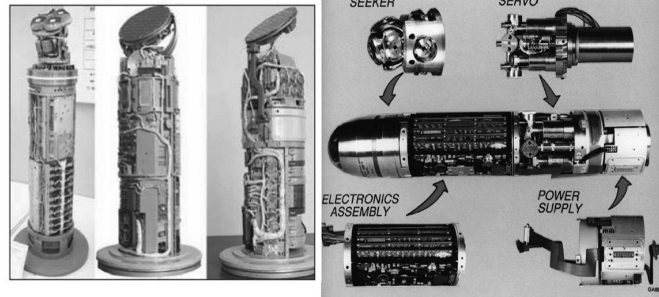
- 1972년 (1958년)
- 美 국방부 산하 R&D 기획평가 전담기관
- 미래기술, 장기적 연구자금 지원 / 이세상에 없는 기술
- 인터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탄소섬유, GPS, 드론
- 윌리엄 페리와 실리콘 밸리

윌리엄 페리 (William James Perry)



- 미국 19대 국방장관 (1994-1997)
- 국방부 엔지니어링,
연구기술 담당 차관 발탁 (1977)
- 실리콘 밸리 기술 업체 창업가 (1960-1970)

유도무기 개발



-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스텔스기
- 포탄 + 마이크로 전자기술의 연결 = **연산력**
- 센서 + 통신장비

반도체 생산



한국: 메모리칩의 44% 생산, 프로세서 칩의 8%



대만: 프로세서칩의 44% 생산, 최첨단 칩의 90% 생산



일본: 전체 반도체의 17% 생산



중국: 전체 반도체의 15% 생산



싱가폴: 전체 반도체의 5% 생산

자료: 미국반도체협회

미국 vs 중국

- 1972년 닉슨의 중공 방문
- 1979년 미중 수교
- 건설적 관여정책 (Constructive Engagement)



건설적 관여정책

"관계가 유지되어야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경제관계가 확대되어야 경제발전에 의해
민주화가 촉진된다."

"중국이 대만을 영토로 보는 주장은 인지하나
수용하지 않고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

"미국은 관여정책을 통해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통합시켜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제이크 설리반 (Jake Sullivan)

- 美 국가안보보좌관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
(2023 4.27, 브루킹스연구소)

" 시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성장은 불평등을 없애고 경제성장은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았다."

제이크 설리반 (Jake Sullivan)

- 美 국가안보보좌관

" 중국은 철강,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첨단
생명공학 등 미래의 핵심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지급 "

" 미국은 제조업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기술
경쟁력도 약화 "

핵심기술의 패권



반도체 무기화 전략

미국 vs 소련

- 3000기 순항 미사일 vs 요격미사일
(3백억 달러- 5백억 달러)
- 스타워즈 / 레이건 대통령
- 제레노 그라드 (소련의 실리콘밸리)

레이건 vs 고르바초프

-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군축 협상



소련의 멸망 (1991.12.26.)

세계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957년)에서
멸망(1991년)까지 **34년**

걸프전 / 사막의 폭풍작전

(1990.8.2.~1991.2.28)

AIM-7 공대공 미사일 명중률

➔ **59.1%** (약 25년 후)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성공했나?

스티븐 월트 교수



- 하버드 케네디 스쿨
- 신현실주의 이론, 위협의 균형론 대가

1.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주의
2. 세계화 전략으로 밀어붙인 자유무역주의
3. 기후위기 방관
4. 중국 성장 등한시

미국 vs 중국

- 관여정책 → 상호의존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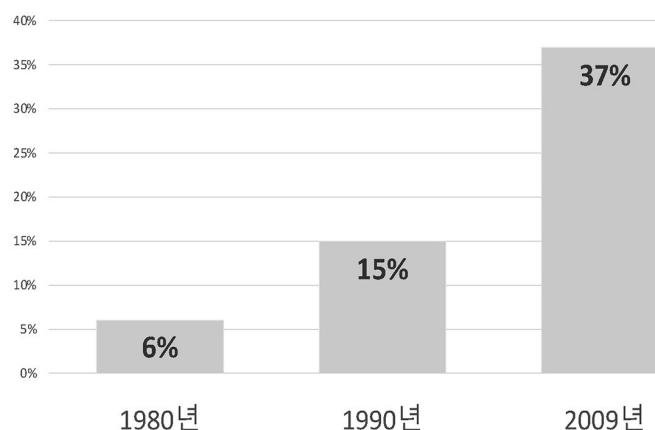
< 미-중 교역량 >

1980년 10억불



2023년 6000억불

< 중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 >



미국 vs 중국

미국 1인당 국민소득 60년간 20배

중국 1인당 국민소득 40년간 25배

- 1980년 500 달러 → 2023년 13,000 달러

- 30년간(1978- 2007) 중국 평균경제성장률 10%

중국의 WTO 가입 (2001)



빌 클리턴 대통령 :

"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상품을 더 수입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더 수용하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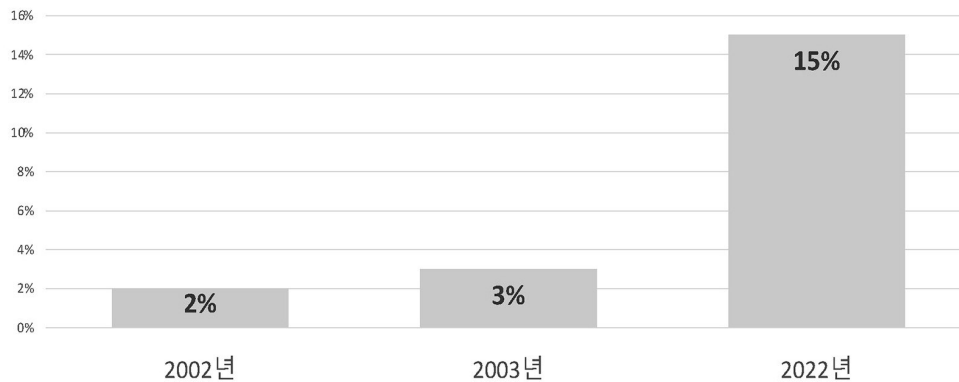
WTO 사무총장 :

" 13 세기 마르코 폴로 중국 탐험이후
중국과 서방을 교역으로 연결하는 다리"



중국의 WTO 가입 (2001)

< 세계 수출에서 중국 비중 >



자료: 세계은행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

-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반도체 (1956-1978)

- 1956년 - 컴퓨터, 반도체, 자동화기술, 무선전자기술
4대 국가 긴급 중요기술
- 1957년 - 중국과학원, 중국 최초 트랜지스터 생산성공
- 1960년 - 최초 반도체 연구기관 설립
- 1965년 - IC 집적회로 개발 성공(미국보다 7년후)

* 한국보다 17년 앞서 (한국 1974년 첫 반도체 회사)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

-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반도체 (1956-1978)

- 1965년 - IC 집적회로 개발 성공 vs 문화혁명
 - " 전인민이 나서서 반도체를 만들자" - 마오쩌둥
 - 과학자, 엔지니어 ➡ 친미주의자로 핍박, 탄압
➡ 시골로 내려가 농사 ➡ 시진핑도 하방
- 대 공산권 수출금지 조약 (6.25 전쟁후 냉전 심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

- 등소평의 개혁개방과 반도체 (1978-2000)

- 1978년 개혁 개방
- 1986년 외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중국 노동시장, 상품시장 활용 개방 대신 기술이전 요구
- 네덜란드 필립스, 일본 NEC 합작공장 설립

* 철 지난 기술 설비, 기술이전으로 실패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

- 중국의 WTO 가입과 반도체 산업 (2000-2015)

-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전기 마련
- WTO 회원국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받아들여야
- 반도체 포함 중요산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허용
- SMIC 상하이 설립 (2000)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

-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 (2015-현재)
 - 2015년 시진핑 반도체 굴기 선언
 - 향후 10년간 1조 위안 (160조원) 투자
 - 15% 반도체 자급률 2025년 70%로
 -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경쟁 승리 목표

미중 갈등

오바마 정부
(2009-2017)



다자주의

트럼프 정부
(2017-2021)



무역관세

바이든
(2021-)



디커플링
➔ 디리스킹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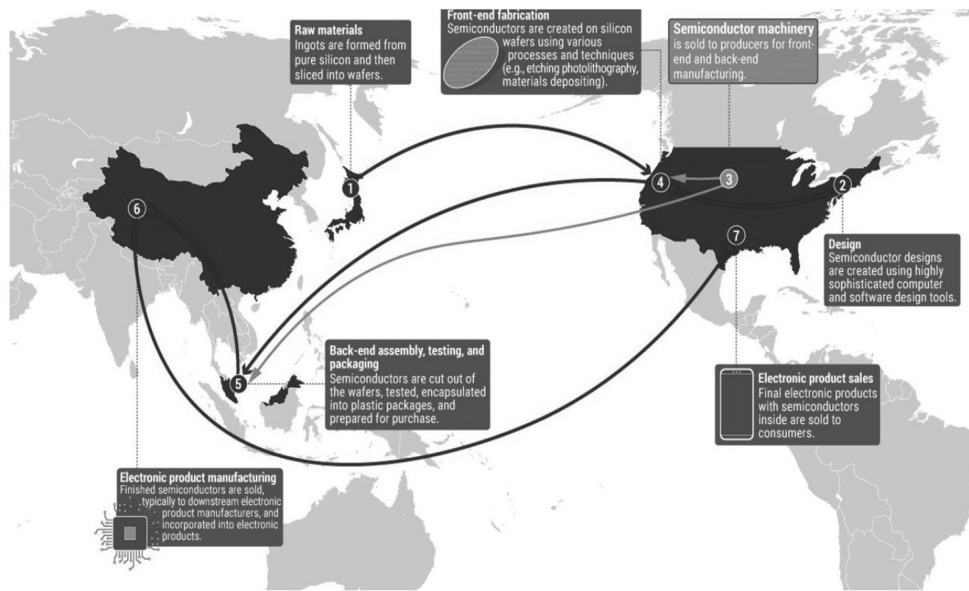
-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의 새로운 워싱턴 합의

- 미국 경제정책 리더십의 변화
-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정책 변화
- OIL 이코노미에서 GREEN 이코노미로
- 높은 울타리, 작은 마당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일본의 반도체 재무장

- 큐슈, 구마모토 TSMC 공장 = SONY 이미지 센서
- 홋카이도 반도체단지 - 라피투스 설립 (일본의 8개 대기업):
2027년 2나노 생산, 저전력 소비 AI 칩 생산
- ASML - 홋카이도 기술지원 거점 설치
- 히로시마 공장, 美 반도체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
1,900억엔 (1조 7천억원) 보조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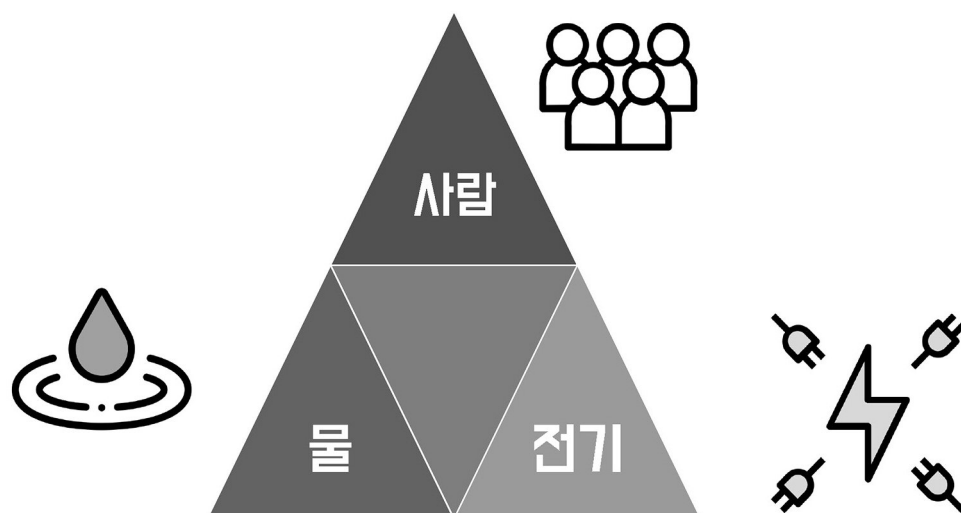
Ronnie Chatterery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제시한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는 팀 스포츠

- 설계, 지적재산권 – 미국
- 제조, 패키징 –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 소재, 부품, 장비 – 일본, 미국, 유럽

반도체 산업의 3대 조건



크리스 밀러와의 만남

- Chip War 저자



21세기 패권국가의 조건

1. 기축 통화
2. 첨단 신기술 지배
3. 우주영토 확장

우주 영토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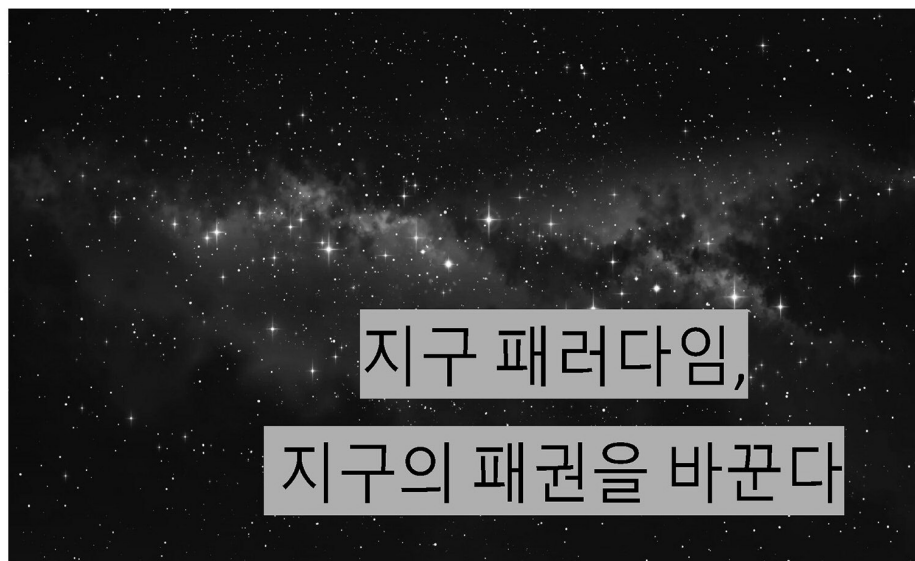
인도 : 2023.8.23 최초 달 남극 착륙 성공.

일본 : 2023.9.7 세계 5번째 달 착륙 도전,
2024.1~2월 착륙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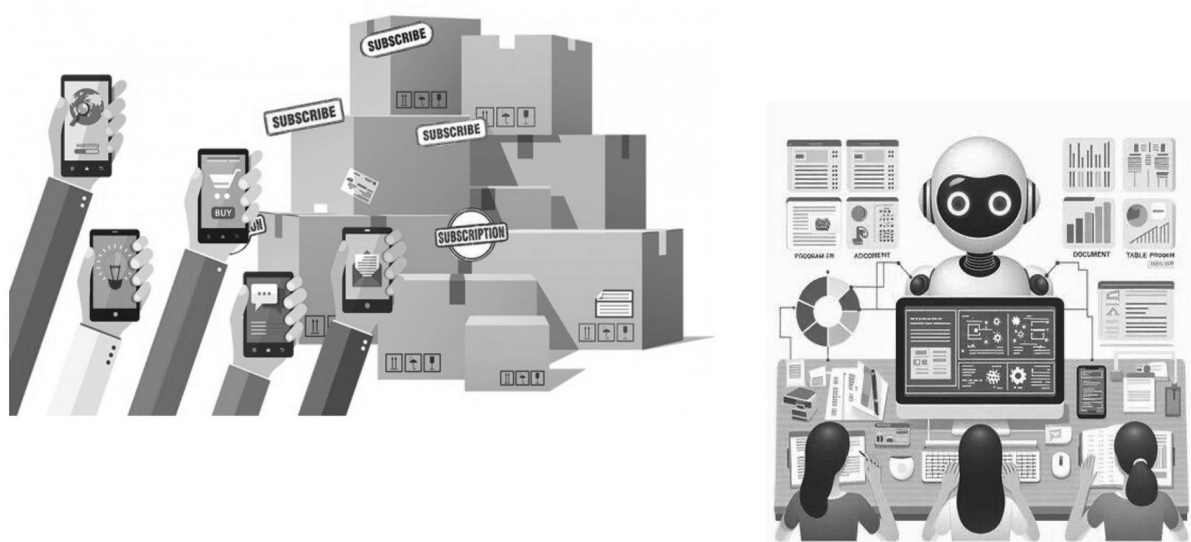
중국의 우주몽

- 2019년 최초의 달 뒷면 착륙 / 텐헤(은하수) 로 명명
- 2021년 5월 화성착륙 성공 (미국 1997년)
- 2021년 시진핑의 우주몽 발표
 - 2045년까지 우주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 목표
 - 태양계 탐사용 우주기술, 핵추진 우주 왕복선 개발

우주의 도전



AI Agent 시대가 온다



* AI Agent: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적 프로그램

-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요청 처리
-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갖추 (머신러닝)
-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문제 해결 능력 갖추 – 에이전트마다 고유한 전문영역 보유
- **자율성, 적응성**
→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림
- **확장성, 연결성**
→ 에이전트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적용 범위 확장



감사합니다



자료 2024-05-10 / SINCE 1990~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임직원 자원재순환 캠페인 ‘나비(나눔+비움) 페스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다가오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ESG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자원재순환 캠페인 ‘나비(나눔+비움)페스타’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활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여 자원재순환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나눔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만 알고 싶은 비상금 통장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도 계좌 상황을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나만 조회할 수 있는 비밀통장인 ‘Wa뱅크 스텔스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보 비공개, 익명성 등 소중한 개인 정보의 외부 노출을 기피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출시된 ‘Wa뱅크 스텔스통장’은 본인 외에는 절대 조회가 불가능한 특징을 탑재한 입출금통장

으로, 17세 이상 실명 확인이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광주Wa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박종춘 부행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보안서비스 이용 고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주은행만의 상품 경쟁력과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지역 인재 희망 장학금 전달...누적 33억원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 인재 희망 장학금 7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지역과 상생을 위해 현 지법인으로 출범한 (주)광주신세계가 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 인재들에게 전달한 희망 장학금은 총 33억원에 달하며, 수혜 인원도 3200명에 이른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지역 인재 희망 장학금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해온 지난 30여년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KATC', 일하기 좋은 기업 2년 연속 선정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북미 러버뉴스에서 선정한 '2024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KATC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곳"이라며 "자동차 기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력의 산실인 KATC가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성에 더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24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가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2024 대한민국 동행축제(이하 동행축제)’에 참여해 오는 5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몰, 렌탈 서비스까지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할

인 및 사은품 지원행사를 실시한다.

임병석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 금호타이어는 올해도 동참하게 되었다. 다양한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 부라더 소주'로 탄산주 열풍 이끈 보해양조 3세 임지선



국내 주류업계가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광주·전에 기반을 둔 호남지역 대표 주조업체 보해양조가 오너 3세 임지선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임 부사장은 2015년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후 국내 첫 탄산 저도주인 '부라더소다'로 주류업계에 탄산주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대구 등 노포 식당을 중심으로 입점 문의가 이어졌으며, 출시 1년 만에 200만병 판매를 돌파하며 역대 보해 신제품 중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파리에서 진행된 '2024 F/W 파리 우먼즈 패션위크' 기간 중 열린 미스치프의 팝업파티에 보해복분자주가 만찬주로 사용되기도 했다. 보해복분자주 특유의 곡선이 담긴 병 모양이 한국적 감성이 잘 드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판단해 선정한 것이다.

앞으로 임 대표가 젊은 감각으로 광주·전남 지역 주류 업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국권, 더 나아가 해외까지 영토를 넓히며 사세를 확장 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전남철강

◆ 서영철 녹색불교아카데미 총동창회장 취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최근 무등산 원효사 대웅전에서 녹색불교아카데미 총동창회 창립총회 및 서영철 총동창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녹색불교아카데미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기째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이날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서영철 총동창회장은 “작은 점이 모여 멋진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듯 회원들의 소망을 모아 큰 희망을 그려나가겠다”며 “총동창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전KDN

◆ NATO 주관 락드실즈 4년 연속 참가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24~26일 서울 용산 카우스 호텔에서 진행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공격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 2024’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락드실즈는 나토 39개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방어·공격·법률자문·운영·기술지원·상황분석 6개 팀으로 구성돼 실시한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사내 정보보안 전문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훈련된 한전KDN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에너지분야 정보보안을 강화해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전기전력전시회서 배전자동화 기술 선보여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2024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서 배전자동화 기술을 선보였다.

한전KDN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20 회 2024 국제전기전

력전시회에서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 및 통신중계장치 등 배전자동화 기술을 출품했다고 밝혔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배전자동화 및 전력계통 운영 솔루션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력산업에서 에너지 산업으로 확장과 다양한 사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KPS

◆ 복지시설 12개소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전국 복지시설 12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면서 에너지복지 실천과 탄소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지난 2019년부터 '빛나눔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한전KPS는 23-24년도에 걸쳐 전남 무안군 소재 에텐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전남 순천시·고흥군·강진군·진도군, 충남 부여군·청양군·금산군 등 12개 복지시설에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들여 총 7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 지속 성장 100년 기업 도약...5대 신성장 사업 추진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 KPS(사장 김홍연)는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신성장 비전으로 '신(新)동력으로 100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를 선포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슬로건으로 '더 나은 100년을 위한 위대한 도전, G.R.E.A.T 한전KPS'를 발표했다.

5대 신성장 사업으로 해외 원전 수출과 화력 발전 정비시장 개척,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 노후 발전설비 성능 개선, 부품 공급 및 설비개선, 원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로봇틱스, 인공지능, 3D프린팅과 같은 사업화와 연계되는 첨단 기술개발로 사람과 기술이 희망인 한전KPS의 100년 미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전MCS

◆ 조남기 신임 사업안전본부장 취임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지난 26일 나주 빛가람동 본사에서 조남기 신임 한전MCS 사업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의 취임식을 열었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4월 26일부터 2년간이다.

조 본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지난 1984년 한전에 입사해 대구지역 본부 전력사업처장, 본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장, 안전보안처장, 경남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조 본부장은 "회사의 가치체계를 업무 전반에 투영해 올바른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력·에너지 업계에서 40여 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경영실적 공유를 통한 전임직원 소통의 시간 가져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필환경 종합에너지기업 (주)해양에너지(대표 이사 정희)는 지난 25일 회사 대강당에서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분기 경영현황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희 대표이사가 회사의 1분기 경영실적 및 계획을 공유하고, 모둠별 토의 및 돌발퀴즈

등을 통해 전임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의 1분기 주요 뉴스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 결과 및 차량사고 감축활동 자료를 공유하였고, 특히 지난 5년간 회사의 차량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드라이빙 클래스 운영, 개인별 운전습관 분석 및 피드백 등의 교육 효과를 톡톡히 확인할 수 있었다.

(주)해양에너지 정희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새롭게 시행된 모둠별 토의와 돌발퀴즈를 통해 딱딱한 분위기의 경영현황설명회를 직원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신선하게 다가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구성원들이 오늘의 분위기처럼 하나되는 마음으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최고 리더들의 1% 다른 생존전략 (김남진 박사)

1647회 금요조찬포럼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김남진 박사를 초청하여 「최고 리더들의 1% 다른 생존전략」을 주제로 건강하게 사는법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건강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네 건강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건강한 게 아니라 멀쩡한 겁니다. 이 멀쩡한 걸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보다 더 큰 장애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그래서 다 멀쩡하다고 그래서 다 멀쩡하더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20대 건강 수준이 거의 70% 가까이에 좋다. 30대도 50%가 넘습니다. 40대부터는 40% 조금 넘다가 50대가 되면 30% 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20% 간신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10%가 넘어갑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 120세 까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주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뇌를 싸고 있는 뇌막에는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는 세막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있는 녀석입니다. 지주막이라는 녀석은 거미막이라는 말도 씁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요. 30%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30%는 병원에 이송하다 죽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다 그냥 한순간에 흑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일회용이라는 걸 압니다.

인간은 일회용이라고 하는게 돌연사를 부르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40대 돌연사 환자 수가 4만 8천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의 원인을 보면 고혈압, 과음, 흡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0~50대 흡연자의 돌연사 위험이 2.8배 높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두 번째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전파합니다.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때 순간 심근경색 확률이 매우 높아 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생존합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광주경총, 『회원사 영화관람 행사』 성황리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주)호원·해피니스CC 회장)가 지난달 30일 CGV광주터미널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상반기 영화관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화관람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지원 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회원사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총 회원사 임직원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절찬 상영 중인 ‘범죄도시4’를 3개관에서 상영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회원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특히 “회원사 임직원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9시, 19시 20분, 19시 30분 3개관에서 영화 상영을 진행하고, 주차장이 넓은 CGV광주터미널을 행사 장소로 선정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회원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좋은 시간대에 여러 상영관 대관이 가능했던 것은 CJ그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이는 평소 양진석 회장의 넓은 인맥이 주요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행사 종료 후 회원기업 참석자는 “2시간 내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오늘 영화관람 행사를 마련해 준 광주경총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경총 김동찬 상임부회장은 “경총이 지난해 2월 (주)호원 양진석 회장 취임 이후 회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회원 수가 650개사로 크게 증가 했으며, 많은 회원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행사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영화관람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관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회원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 경제 동향

◆ 통계청,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4.30)

- **(생산)** 2024년 3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Delta 3.2\%$), 서비스업($\Delta 0.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1% 감소*(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 전산업생산은 '20.2월($\Delta 3.2\%$)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 전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0.3('23.11)→ 0.4(12)→ 0.3('24.1)→ 1.1(2)→ $\Delta 2.1$ (3)
 - 광공업생산은 음료(1.4%)에서 늘었으나, 금속가공($\Delta 10.6\%$), 전자부품($\Delta 7.8\%$)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2% 감소(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1.4%)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Delta 3.5\%$), 숙박·음식점($\Delta 4.4\%$)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제조업평균가동률)** 2024년 3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1.3%로 전월대비 3.2%p 하락(전년 동월대비 0.5%p 하락)
 - ※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 73.0('23.11)→ 72.0(12)→ 72.1('24.1)→ 74.5(2)→ 71.3(3)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3월 제조업 재고율은 111.6%로 전월대비 1.4%p 상승(전년동월대비 1.3%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12.5('23.11)→ 104.1(12)→ 111.7('24.1)→ 110.2(2)→ 111.6(3)
- **(소매판매)** 2024년 3월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Delta 2.7\%$)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비내구재 (2.4%), 내구재(3.0%)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설비투자)** 2024년 3월중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Delta 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Delta 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6.6% 감소*(전년동월대비 4.8% 감소)
 - * 설비투자는 '23.7월($\Delta 8.6\%$) 이후 8개월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건설투자)** 2024년 3월중 건설투자는 건축($\Delta 9.5\%$) 및 토목($\Delta 6.0\%$)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8.7% 감소(전년동월대비 2.1% 감소)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전월대비 0.3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전월대비 0.2p 하락)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 (5.1)

- **(총괄)** 2024년 4월 수출은 562.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했으며, 수입은 547.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 ※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4.9%)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4.9('23.10)→ 7.3(11)→ 5.0(12)→ 18.2('24.1)→ 4.9(2)→ 3.1(3)→ 13.8(4)
 - 4월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흑자를 기록(11개월 연속 흑자)
 -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44.5('23.12)→ 4.1('24.1)→ 43.4(2)→ 42.9(3)→ 15.3(4)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 수출의 약 75% 차지) 중 철강, 이차전지를 제외하고 컴퓨터, 반도체 등 13개 품목이 증가
 - ※ 2024년 4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 : (컴퓨터) 76.2, (반도체*) 56.1, (바이오헬스) 21.3, (석유제품) 19.0, (디스플레이) 16.3, (석유화학), 12.3, (무선통신) 11.4, (자동차) 10.3, (가전) 9.4, (선박) 5.6, (차부품) 2.9, (섬유) 1.7, (일반기계), 1.5, (철강) △5.7, (이차전지) △20.1
 - * 4월 반도체 수출은 99.6억달러를 기록했고, '23.11월(12.9%) 이후 6개월 연속 증가
 -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 12.9('23.11)→ 21.7(12)→ 56.2('24.1)→ 66.7(2)→ 35.7(3)→ 56.1(4)
- **(국가별)** 對EU(7.1%), 對CIS(34.9%) 등 수출은 감소했으나, 對중남미(38.2%), 對미국*(24.3%), 對일본(18.4%), 對인도(18.0%), 對아세안(10.5%), 對중국(9.9%), 對중동(1.0%) 등 수출은 증가
 - * 對미국 수출은 '23.8월(2.4%) 이후 9개월 연속 증가

◆ 통계청,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5.2)

-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 2023년 8월(3.4%)부터 12월(3.2%)까지 3%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는 2024년 1월(2.8%) 2%대로 하락 후 2월(3.1%)에 다시 3%대로 재진입하여 3월(3.1%)까지 3%대를 지속했으나, 4월에 다시 2%대로 하락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3.2('23.12)→ 2.8('24.1)→ 3.1(2)→ 3.1(3)→ 2.9(4)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9%), 의류 및 신발(5.3%)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농축수산물(10.6%)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2.8%)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2024년 4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

◆ 기획재정부,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발표 (4.30)

- 4월 30일 S&P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S&P는 한국의 견조한 수출 경쟁력과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성장률이 2023년 1.4%에서 2024 2.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또한, 한국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2018~2021년 동안 평균 6%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2022~2023년 동안 1%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
- 이와 더불어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번 4월 총선 결과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S&P는 한국의 견조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등 강력한 대외건전성이 견고한 신용등급의 기반이라고 언급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4.30)

〈 고용 부문('24.3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9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7천명(1.0%)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11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6.8%) 감소했고, 이직자는 10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5.6%) 감소

〈 근로실태 부문('24.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35만 1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원(11.5%) 증가
 - ※ 임금총액 증가는 전년에 1월이었던 설 명절이 금년에는 2월에 포함되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5.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3시간(△4.8%) 감소
 - ※ '24년 2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감소(20일→19일)한 영향

◆ **고용노동부,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4.30)**

- **(시간당 임금총액)** 2023년 6월 기준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2,878원으로 전년 동월(22,651원)대비 1.0% 증가
 - ※ 전체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2022년 6월 기준 352.6만원에서 2023년 6월 기준 364.0만원으로 3.2% 인상
 -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4,799원으로 전년동월(24,409원) 대비 1.6%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17,586원으로 전년동월(17,233원) 대비 2.0% 증가
- (참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 ▶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70.9%로 전년동월(70.6%) 대비 0.3%p 상승
 - ※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 : 69.7('19)→ 72.4('20)→ 72.9('21)→ 70.6('22)→ 70.9('23)
- **(월평균 근로시간)** 2023년 6월 기준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154.9시간) 대비 2.7시간 증가
 - ※ 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증가함(20일→21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
 -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5시간으로 전년동월(169.0시간) 대비 5.5시간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111.0시간으로 전년동월(111.7시간) 대비 0.7시간 감소

2. 노사 동향

◆ 정부와 여당은 노사법치 기반의 노동정책 추진 의지 피력

- 정부와 여당은 5. 1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권 보호와 함께 노사법치 중심의 정책 추진 강조
 - 대통령은 5. 1 SNS 메시지를 통해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발표
 - 또한, 여당은 노조 회계공시 도입 등 법치주의 확립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고용노동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발표
- 한편, 올해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이 4. 30로 마감된 가운데 양 노총을 포함한 641개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
 -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는 해당 노조와 그 상급단체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 공제
 -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불참

◆ 임단협을 둘러싼 자동차·조선업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금속노조 산하 한국GM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
 - 한국GM지부는 4. 25 ▲기본급 159,8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신차 2개 차종의 국내 공장 생산 등이 포함된 임단협 요구안 발표
 - 현대중공업지부는 4. 30 ▲월 기본급 159,800원 인상,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이 포함된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
 - ※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는 5월 초, 기아차지부는 6월 중 각각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단협 요구안을 논의할 전망
- 금속분야는 완성차지부, 조선사지부를 중심으로 강성 집행부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고율의 임금인상, 정년연장과 함께 집행부 1년차 성과 확보와 맞물려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http://www.gjef.or.kr>

금요조찬포럼 / Ⅲ. 노동경제동향

- 한편, 금속노조 집행부는 지난 4. 15부터 산하 조직 현장 순회를 진행하며 산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투쟁 분위기 확산 시도
 - 금속노조는 6월 중순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해 7. 10 산별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

- 고용부는 4. 29 거짓채용 광고,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 등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
 - ※ 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점검 기간 : 2024. 5. 1 ~ 6. 28
 - 고용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신고 접수된 사업장,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진행 예정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 2년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공동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